

적극행정이 불러온 나비효과

자치CEO

명현관
해남군수



“우리 아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차, 생각이 들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만큼 애타는 것이 있을까? 곧바로 해남의 소아청소년과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관내 종합병원에서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밤에는 인근의 야간진료가 가능한 대도시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급성질환이 많은 소아, 청소년 환자의 특성상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내 야간진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간의료기관 조례를 만들고, 군 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종합병원을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축소 분위기 속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는 과정 또한 난항이었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와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땅값 해남까지 와주실 의사가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활용해 의사 찾기에 나섰다, 다행히 실력 있고 뜻 있는 의

사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됐다.

조례를 새로 만들고, 발품을 팔아가며 동분서주 하기를 6개월여, 지난해 7월 드디어 해남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야간진료를 개시하게 됐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1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1만 7,000여명이 야간진료를 이용, 하루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직장을 마감하고 병원을 찾기 위한 예약전화로 매일 오후면 전화통이 불이 난다고 한다. 해남은 물론 인근의 강진, 완도 등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에서까지 찾아올 정도이다. 급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가벼운 증상의 어린이 환자들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고맙다는 칭찬을 가장 많이 들은 정책이기도 하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이 합쳐져 이뤄낸 변화이다.

요즘 공직사회의 화두는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은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행정 수요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다. 과거의 관습에 안주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강조하기보다 자율과 책임하에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남군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적극행정 성과들에 대한 보상기회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군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종 성과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보상,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은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더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걸음 더 다가가 들여다보며 군민의 숨겨진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다. 해남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다.

기고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축제와 조선대 ‘도시 캠퍼스’

축제라면 놓고 즐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다, 한바탕 흐드러지게 놀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고 오는 게 축제의 전형이랄 수 있다. 그런 축제가 기존의 모습과 다르게 배운, 즉 학습공간으로 바뀌는 곳이 있다.

바로 총장축제다. 오는 10월2일부터 6일까지 총장로와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질 총장축제, 거기에 조선대학교가 나서서 총장축제의 현장을 캠퍼스로 바꾸는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 총장축제가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캠퍼스가 된다.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추억과 열정을 불태우는 장으로 탈바꿈된다. 조선대 ‘K컬처공연·기획학과’의 수업을 통해서다. 총장축제는 광주시 동구 축제가 아니다.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지 오래됐다. 그런 총장축제에 조선대학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에 젊은 활력을 부여하려 한다.

조선대 ‘K컬처공연·기획학과’는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가르친다. 그렇게 공부하고 배운 바가 총장축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토대가 된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즐겁다. 자신들이 배운 것이 곧바로 축제현장에 실현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실행프로그램을 곧바로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론만 알고 현장에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기존의 강의를 벗어나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더군다나 컬처공연과 기획은 강의실 수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이 필수적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총장축제와의 콜라보 수업은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다. 교수들도 거기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짜느라 머리를 싸맬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조선대학교의 행보는 결코 단순 참여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다. 축제 일부 기능에 살짝 엮어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총장축제에서의 대학 기능을 온전히 살려내기 위함이다.

지난 8월13일 D-50 기념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대국민발표회에서 광주시 동구와 조선대학교는 총장축제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총장축제에 조선대가 함께 할 것을 내외에 선포했다. 이로써 총장축제는 단순 놓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배움과 학습의 축제로 그 영역을 넓히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 조선대학교가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대학교는 필자가 총장에 취임한 직후 내놓은 ‘도시 캠퍼스’ 플랜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도시캠퍼스는 지역사회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예술의 거리로 미술대학 캠퍼스가 진출하고, 쇠락하는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창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벗어나 도심 속에서 소상공인 및 지역민과 같이 수업을 듣고 생활한다. 조선대학교는 도시캠퍼스를 지역사회단체와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동구 서석동 375번지 60만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강의실에 갇히지 않고 쪽쪽 뻗어나가야 한다. 거기에 맞춰 도시캠퍼스의 구체적 플랜을 짜고 있다. 총장축제의 협업이 도시캠퍼스의 구체적 실행무대가 될 거 같다. 놓고 즐기는 축제에다 배움이 더해진 총장축제가 시민들과의 교집합을 조화롭게 만들어 세계적인 축제로 부상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캠퍼스는 앞으로 점점 그 역할이 커질 것 같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실질적인 기술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에 그렇다. 도시캠퍼스는 단순히 대학의 홍보 전략이 아니다.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선대학교 도시캠퍼스와 함께 하는 총장축제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재미로 다가들길 기대한다. 혁신적인 도시캠퍼스가 총장축제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시라.

독자투고

AI목소리로 속여 돈 빼가는 신종사기

최근 딥보이스(DeepVoice) 기술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딥보이스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고도로 모사할 수 있는 기술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지만 이 기술의 악용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와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딥보이스는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재현하는 기술이다. 이는 원래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등 다양한 긍정적인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범죄 유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음성 사기(Voice Phishing)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목소리로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을 꾸미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기업의 보안 시스템에서 음성 인식을 인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범죄자들이 해당 기술을 악용하여 보안 인증을 우회하고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셋째, 유명 인사나 공직자의 목소리를 모사하여 가짜 뉴스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수법이다. 이는 대중

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기타, 시대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딥보이스(AI)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딥보이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금융 범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기 범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동반될 때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배지환 <여수경찰서 경무계 경장>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